

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여성정책이슈나 다양한 여성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<KWDI Brief>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.
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우리 사회 미투운동에 대해 여전히 높은 지지(70.5%) 76.7%가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 필요하다는 인식

미투운동 지속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'남녀 간 갈등 프레임'

한국여성정책연구원, 미투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발표

조사 요약 및 시사점

- **미투운동을 지지하는 비율은 70.5%로 여성 중 80.7%, 남성 중 60.7%임**
 - 20대의 경우, 본원의 2018년 7월·11월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여성은 약 80%대, 남성은 약 50%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어 미투운동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- **미투운동은 우리 국민의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**
 - 여성 중 62.0%(남성 중 58.3%)가 과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성희롱·성폭력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, 74.5%(남성 중 49.7%)는 과거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경험한 일들이 성희롱·성폭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함.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, 남성은 40대·50대 중장년층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음
- **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음**
 - 재판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76.7%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 여성은 85.9%, 남성은 68.0%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
- **하지만 성희롱·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을 때,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함**
 - 여성 중 62.9%, 남성 중 57.2%가 성희롱,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도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. 20대 여성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서, 74.7%가 신뢰가 생기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(20대 전체 69.3%, 20대 남성 64.7%)
- **미투운동을 지속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권력 기반 성폭력이 남녀 간 갈등 프레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**
 - 권력을 악용한 성폭력을 남녀 갈등 문제로 몰아가는 태도(34.9%),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(27.6%), 피해자의 2차 피해(21.0%), 학교와 직장 내 성 차별 문화(7.8%)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

조사개요

구분 / 내용

모집단 :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~ 59세 성인 남녀

표본크기 : 2,012명(유효표본 기준, 남성 1,030 51.2%, 여성 982 48.8%)

조사지역 : 17개 시/도

층화 : 시/도, 성별, 연령대별

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$\pm 2.18\%p$

조사방법 : 무선 RDD(Random Digit Dialing), CATI(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) 시스템을 활용한

전화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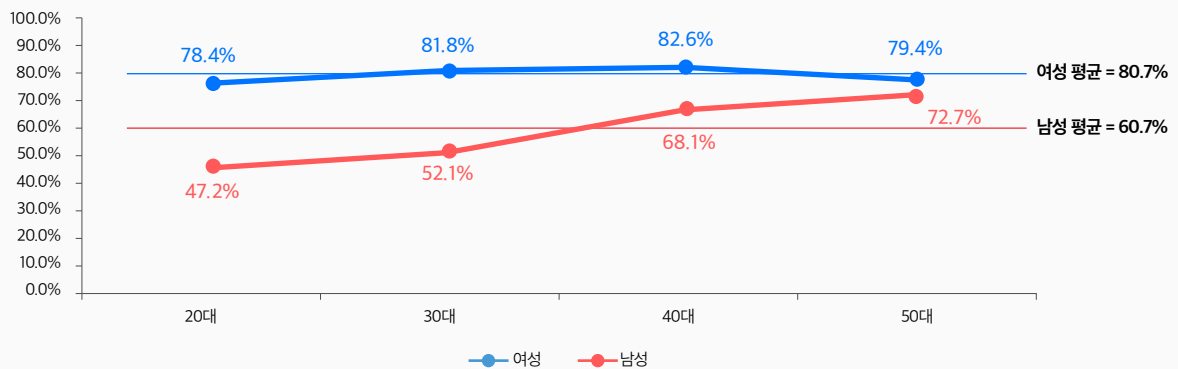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 : 2019년 2월 27일 ~ 3월 4일(3일간)

응답률 : 12.3%

우리 사회 미투운동에 대한 공감대 수준 여전히 높아

미투운동을 “지지한다”는 응답자가 70.5%로 미투운동에 대한 공감대 수준이 상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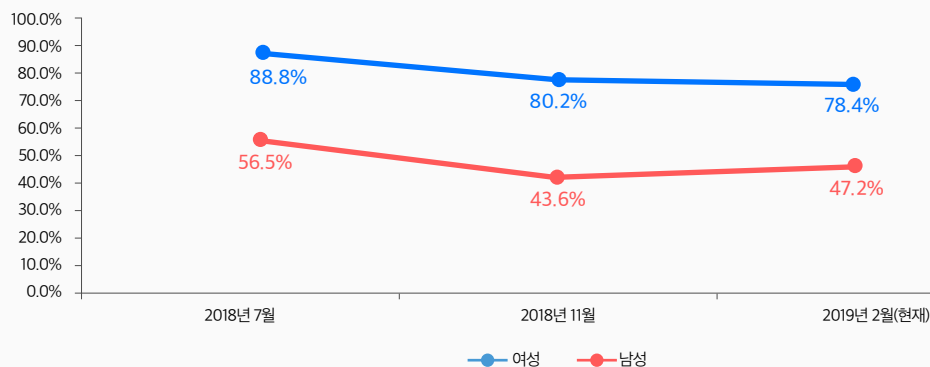
- 여성은 80.7%, 남성은 60.7%가 “지지한다”고 응답해 여성과 남성 모두 과반 보다 높은 지지를 하고 있음
- 연령대별로 보면, 여성의 경우 연령대별로 큰 차이 없이 지지도가 80% 내외로 높은 반면, 남성은 40대·50대가 70% 내외로 높고, 20대와 30대는 50% 내외로 낮은 특성을 보임[그림 1]



[그림 1]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비율(성별, 연령대별)

주 : 지지한다 = 매우 지지한다 + 약간 지지한다

- 20대의 경우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함. 20대가 “지지한다”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은 2018년 7월 88.8%, 11월 80.2%에서 현재 78.4%로 약 80%대를 유지하고 있으며, 남성은 2018년 7월 56.5%, 11월 43.6%에서 현재 47.2%로 소폭 상승함[그림 2]



[그림 2] 20대의 미투운동 지지도 변화추이(성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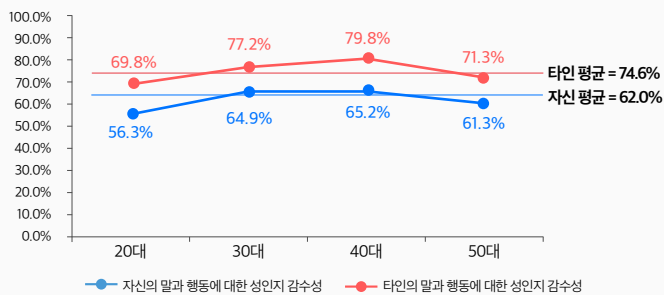
주 : 1. 2018년 7월, 11월 20대의 미투운동 지지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1월 15일 보도자료 참고 <http://www.kwdi.re.kr/plaza/bodoView.do?p=1&idx=122809>

2. “지지한다”는 응답을 기준으로 작성(매우 지지한다 + 약간 지지한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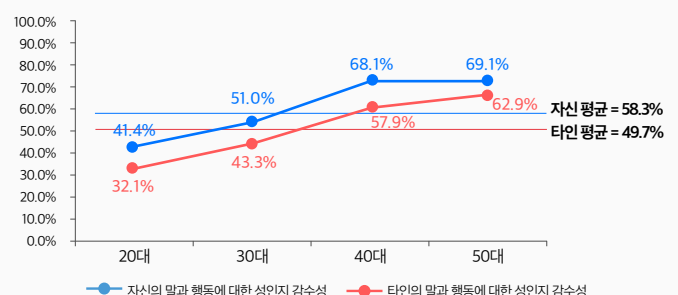
미투운동은 우리 국민의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

미투운동 이후 우리 국민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짐

- 여성 중 62.0%가 과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성희롱·성폭력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, 74.5%는 과거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경험한 일들이 성희롱·성폭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함[그림 3]. 남성 중 58.3%가 과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성희롱·성폭력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, 49.7%는 과거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경험한 일들이 성희롱·성폭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함[그림 4].
-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효과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난 경향이 있었으나[그림 3], 남성의 경우는 40대·50대 중장년 남성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효과가 20대·30대 청년층 남성들에 비해 높음[그림 4]. 중장년층의 축적된 사회적 경험이 피해자와 차별적 상황에 대한 감수성을 확장시켰을 거라고 볼 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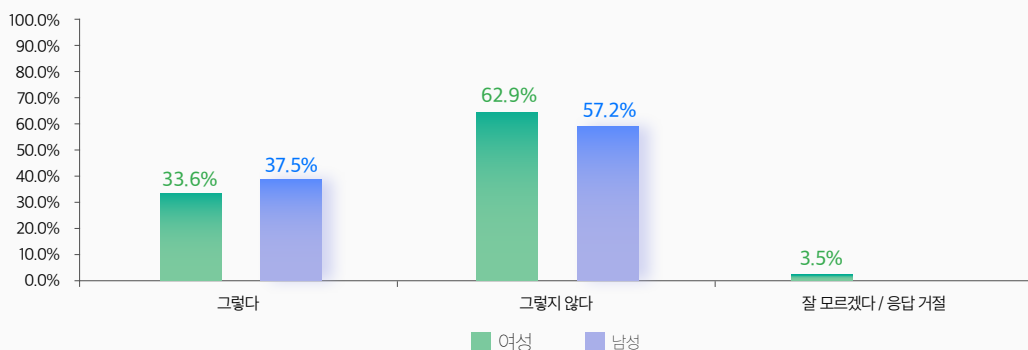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미투운동의 여성 성인지 감수성 향상 효과



[그림 4] 미투운동의 남성 성인지 감수성 향상 효과

하지만, 권력 기반 성폭력을 제기했을 때 불이익 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수준은 아님

- 미투운동 이후, 내가 성희롱,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면,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는데 대해 60%가 “그렇지 않다”고 응답함
- 여성은 “그렇지 않다” 62.9%이고 남성은 57.2%로 여성의 합리적 처리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낮음[그림 5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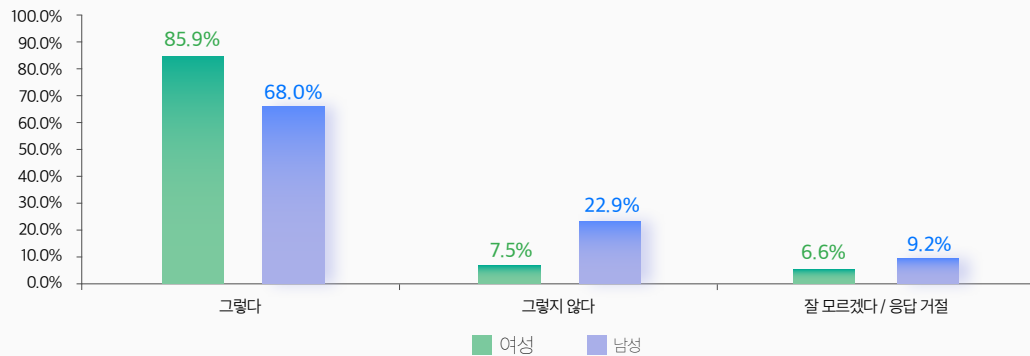
[그림 5] 성희롱·성폭력 신고 시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 신뢰(성별)

주: 그렇다 = 매우 그렇다 + 약간 그렇다

그렇지 않다 = 별로 그렇지 않다 + 전혀 그렇지 않다

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 높아

- ④ 성범죄 사건 처리 시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음
- 재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처리 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, 76.7%가 “필요하다”고 응답하였음. 여성 중 85.9%, 남성 중 68.0%가 “필요하다”고 응답하였음[그림 6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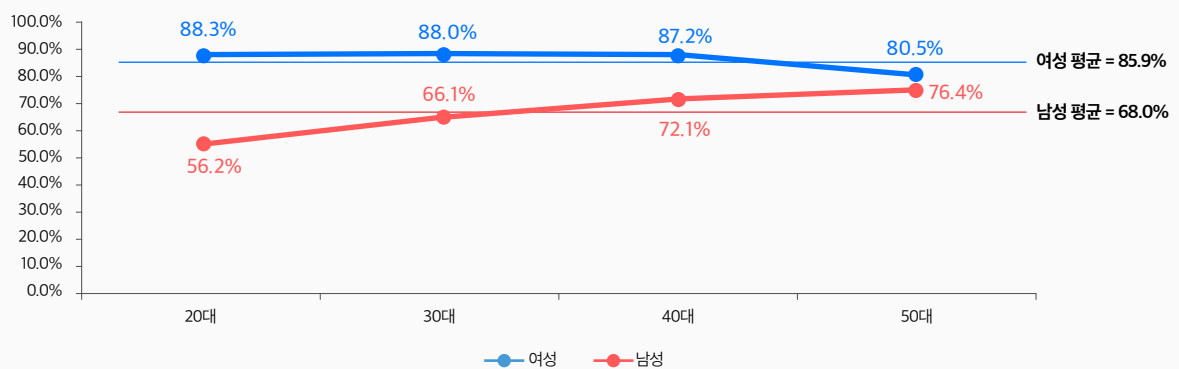


[그림 6]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재판 시 성인지 감수성 필요(성별)

주: 그렇다 = 매우 그렇다 + 약간 그렇다

그렇지 않다 = 별로 그렇지 않다 + 전혀 그렇지 않다

-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80% 이상이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을 제시하였음. 남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40대와 50대는 70% 이상의 높은 지지를 보임[그림 7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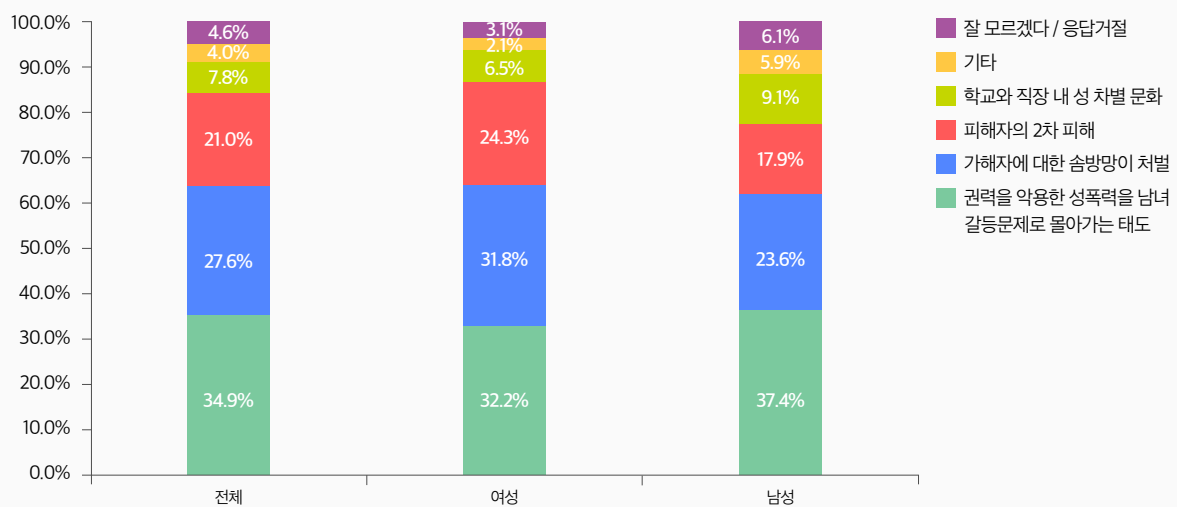


[그림 7]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시 성인지 감수성 필요(성별, 연령대별)

주: “필요하다”는 응답을 기준으로 작성(매우 필요하다 + 약간 필요하다)

④ 미투운동으로 인해 성희롱·성폭력이 권력에 기반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넓어져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

- 향후 미투운동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녀 갈등 프레임을 지적하여(34.9%),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희석시키는 것은 성차별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음
- 남성 중 37.4%는 ‘권력을 악용한 성폭력을 남녀 갈등 문제로 몰아가는 태도’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음. 여성은 미투운동을 이어가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‘권력을 악용한 성폭력을 남녀 갈등 문제로 몰아가는 태도’와 ‘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’을 각 32.2%, 31.8%로 지적하여 공정한 수사과 재판에 대한 기대도 상당함을 드러냈음[그림 8]



[그림 8] 미투운동을 이어가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